



www.nonhyunsenior.org
사회복지법인 강남구립 노년노인종합복지관

꿈꾸는 청춘, 아름다운 사람들

청아람

2019 Vol.16

행복한 노년! 
Dream in 노년!





행복한 노년! Dream in 노년!

2019 Vol.16

청아람

발행인 박종원
발행일 2019년 1월(통권16호)
발행처 강남구립 노년노인종합복지관
주소 06111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28길 59
전화 02-541-0226-8
팩스 02-541-0116
편집인 성정훈
홈페이지 www.nonhyunsenior.org
디자인·제작 (주)디자인비니(553-7672)

꼬부랑 할머니

양 점 속

백발에 색색
물들이지 않았어도

미소는 나팔꽃 같고
맑은 시냇물 같은

쭉그렁 할머니의 신내
짜매도 번지는 젖내

세월이 오래도록 데리고 놀아서
짜글짜글 금이 가고 실실 늘어져도

새빨간 올강주머니
홍시처럼 묶여있다

여는 글	04	사회복지법인 남서울복지재단 화종부 대표이사
공감마당	05	新노년 라이프 - 4인 4색 우리들의 이야기
	06	①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 - 김경혜 어르신
	07	② 어른들의 고언(苦言) - 정해관 어르신
	08	③ 무병장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윤효옥 어르신
	10	④ 또순이의 성공일기 - 이순희 어르신
소통마당	12	2018 노년 10대 뉴스
	14	노년 Focus : 황금브레인 아카데미 총명학교, DoDo 아카데미
나눔마당	18	행복파트너즈 : 봉사자 - 이미화 자원봉사자, 제아치과
	20	행복파트너즈 : 후원자 - 장정자 후원자, KB 국민은행 학동역지점
	22	아름다운 사람들 - 2018년 후원현황보고, 자원봉사자&후원자 명단

• 꿈꾸는 청춘, 아름다운 사람들 : 청아람 Titled by 허주희 물리치료사
청아람은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늘 푸르고 젊으며,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노년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 Cover Story : 인생의 활기찬 노후를 배우자와 함께 하시는 복지관의 대표커플, 이쾌섭♥김신자 부부, 오세규♥강정화 부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 3월 부터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남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화중부 목사입니다.

남서울복지재단은 “이웃을 섬기며 세계를 품는” 남서울교회의 비전에 따라 지역사회를 사랑과 전문성으로 섬기기 위하여 남서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재단은 한국이 2017년도에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성공적인 노후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시대적 현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노인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요엘 2:28)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젊을 때 이루지 못하셨던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제2의 청춘을 펼쳐 가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르신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 소통하며 공존하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와 함께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 변화와 품위 있는 신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합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라며 어르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좌측부터 김경혜, 정해관, 윤효옥, 이순희 어르신

4人 4色 우리들의 이야기

인터뷰 성정훈, 노재경 사회복지사

우리 복지관의 주인공은 바로 이용자 어르신들이다. 여기 4명의 복지관 이용자 어르신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모였다.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삶의 아름다움을 돌이켜보게 하는 이들의 사연은 무엇일까?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 新노년 라이프

interview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 - 재능나눔사업 'Fun Fun 선생님' 김경혜 어르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혜라고 하고요. 올해 재능나눔 사업 편편선생님에 참여해서 논현노인요양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상담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저희복지관과 인연이 시작되셨나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요양원에서 계속 누워서 계셨어요.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뜻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렇게 고생하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요양원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죠. 거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강말라서 뼈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손을 어루만져드리고 싶고, 웃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머님만의 특별한 봉사활동방식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부엌일을 오랫동안 해오신 어르신에게는 익숙한 그릇, 수저같이 부엌용품들 먼저 보여드리고 만져보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그 어르신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동물들 새나 닭같은거. 세라믹이나 나무로 만든 피규어도 제가 직접 구해서 가져오면 어르신들이 보고 만지면서 또 좋

아하시구요. 힘든 현재와 미래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분들에게도 빛나고 아름다운 과거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찾아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정지향)님이 치매어르신 대상 인지기능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얻어서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아마 바빠서 힘드시겠죠(웃음). 제가 여러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모두에게 똑같은 정형화된 프로그램보다 개개인의 특성을 맞추는게 중요하고 그걸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봉사활동을 계속해나가는게 저의 목표입니다.

최근에는 강남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코엑스 아쿠아리움 어류 해설 봉사단 '어화랑' 활동도 하고 있는 김경혜 어르신은 우리 개개인의 고유함을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며 오늘도 행복을 전도하기 위해 힘찬 걸음으로 봉사활동을 나선다.



어른들의 고언(苦言) 정해관 어르신

2 新노년 라이프

일을 반적으로 나이 많고 성장의 한계에 와있는 사람을 통칭하는 노인. 우리말로 늙은이라 한다. 또 어른(어르신)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다 성장하였거나 지위 혹은 향렬이 높은 사람을 경칭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모두 인격의 완성체는 아니다. 일제의 식민시대를 거쳐 6.25 전쟁의 고통과 가난 속에서 질곡의 아픔이 있었고 건설의 역군으로 오늘의 풍요를 이끈 장본인들임에 틀림없고 따라서 우리 국민은 칭송과 존경으로 그들을 대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것은 그들은 정신교육이 부족했고 편파교육(일류병)에 물질사상으로 반쪽인간을 양산한 과오가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절름발이로 자란 저들을 편견과 외골수로 기성세대를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음을 여기저기서 목격된다.

물론 저들 젊은 세대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계층별로 갈등과 각종 사건, 사고가 연일 벌어지고 있어 근본적, 혁신적 대안이 필요하다. 노인들과 특히 어른들은 내 탓이라 반성하고 저들을 보듬고 격려와 지도를 해야 할 것이며 방관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희망적인 것은 젊은 세대들에 뒤지지 않으려고 노인사회복지관, 구민회관, 각종 사회단체 등지에서 열성적으로 공부하고 정보교육을 받는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은 어른 세대들을 이해하면서 잦은 대화를 나누고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을 가져야 한다. 선진국 말에 아버지가 없으면 이웃집 아버지를 찾아가 묻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네 도서관이 없어진 것과 같다고 하면서 그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얻었다고 한다.

나라는 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 고교까지는 인문(人文) 인본(人本)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대학은 소수 정예의 전문교육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이미 선진국들은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4차혁명 시대로 가고 있다. 특히 아버지 또는 어른 세대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자녀에게 인내심, 독립심, 자긍심, 배려심 그리고 가치관의 정립, 실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新노년
라이프

interview

무병장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가지의 암을 이겨낸
'암 스트롱맨'

윤희옥 어르신

“논현노인종합복지관 회원들 중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암 투병 중에 있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방광암까지... 끊임없는 암세포의 공격에도 불사신처럼 살아남은 어르신! 그래서 '암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주인공, 윤희옥 어르신. 무려 암을 4가지나 겪었지만 인생이 즐겁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려 암을 4가지나 겪었지만 살아남아 항상 즐겁게 살고 있는 윤희옥입니다.

암을 무려 4가지나 겪었다고 하셨는데, 언제 처음 암을 발견하게 되셨나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경찰공무원이 되었는데, 경찰생활을 하던 도중 대학 졸업장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46세에 늦깎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즈음 피곤이 풀리지 않으면서 개운하지 않았고 내 나이 46세에 첫 번째 암인 대장암을 발견했습니다.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담당의사가 수술하기 전에는 대장 5cm만 잘라내면 되는 수술이라고 했는데 80cm나 잘라냈어요. 청천벽력 같았죠.

그런 큰 수술을 하시고도

이겨내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5년 동안 생존율이 20%도 안된다고 했어요. 그 순간 부모님이 생각났고 바로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님 먼저 가는 불효는 저지르지 않겠다! 20%라도 살 확률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요. 좌절하는 대신 살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먼저, 가족을 서울에 두고 혼자 근무지를 변경해 공기 좋은 안성으로 갔어요.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에 5일씩 항암치료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이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마음가짐을 매일 새로 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와도 도로 삼켰고 뱀으면 지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암에 이어 전립선암까지 발병했는데요.

2002년 7월, 위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이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지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또 다시 병원에서 위를 3/4이나 잘라내는 수술을 했고 이제는 별일 없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2년 뒤인 2004년 소변에서 혈뇨가 나왔고 전립선암을 판정받았어요. 이쯤 되니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낙천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말 한마디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가족과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구나, 운명이 여기까지라면 어쩔 수 없지. 팔자려니 생각했어요.

10년 뒤인 2016년에 방광암까지 생겼지만 원망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고, 또 다시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헤쳐나오면 되는 일이니까요. 이런 마음 덕분인지, 방광암도 치료로 완쾌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두려움을 버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암을 이겨낸 지 2년이 지났는데 날마다 사는 것이 즐거워요. 복지관에서 기타도 치고 봄이 오면 집 옥상 텃밭에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어 가꾸어 먹습니다.

저를 보고 암 환우들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암 투병 중인 가족이 있다면 상담을 해드리고 싶어요.

“
자신을 보고 암 환우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윤희옥 어르신,
암 투병 중에 상담을 원하는 분은 상담을 해 주고 싶다.
그에게 주어진 행운에 보답하는 길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



4
新노년
라이프

저는 올해 72세 된 할머니입니다. 손주는 4명을 두었습니다. 저는 8년 전만해도 초등학교만 졸업한 열등감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올해 저의 인생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나는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의 모든 것을 배웠다>라는 책을 써서 칠순에 꿈을 이룬 작가가 되었습니다. 저의 책속에서 세 가지의 꿈을 이룬 성공 수기가 쓰여 있습니다.

또순이의 성공일기 이순희 어르신

첫 번째 이야기는 저는 1974년 9월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은 두 번의 사업 부도로 사글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셋이나 되었습니다. 사랑은 원수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살아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친구들은 교복입고 학교 갈 때, 나는 네 명의 동생들과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빵 공장, 양은공장, 한 때는 식모살이까지 내 팔자는 왜 이리도 박복하단 말인가? 왜 나는 가난한 부모만나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 왜 못난 남편 만나 지지리 궁상으로 살아야 하나? 남편원망

도 해보고, 부모들 원망도 해봤지만 아무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떴을 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내가 낳은 저 아이들을 내가 책임져야지. 저 아이들을 위해 내가 나서 보자, 내 팔자 내가 한번 바꿔보자” 마음을 다 잡고 인생을 다시 살아볼 결심을 하고 나니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개선장군처럼 길을 나섰습니다.

“아줌마 구함” 식당에 취직하면서 아이들 밥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을 하다가 머리가 아파 그만 두고 남편 손을 잡고 동대문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한 장사는 힘든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35년 된 지금 논현동에 원룸을 지어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생활비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나에게는 더 이상의 돈은 필요 없었습니다. 나의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 공부를 하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내 나이가 63세였습니다.

“당신 미쳤어! 당신 환갑, 진갑 지난 할머니야, 이제 공부해 뭐하게? 그리고 머리가 안돌아서 못해 괜히 쓸데없는 고생하지 말고 나랑 놀러나 다녀 그만 뒤!” 남편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보, 나는 중학교라도 나오고 싶어, 나 이대로 공부 못하고 무덤 속에 들어간다면 아마도 벌떡 일어나 뛰쳐나올 거야” 저는 그만큼 공부에 대해 한이 맺혀 있었답니다. 나는 남편을 열레고 달래면서 겨우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나는 결국 63세에 중학교 검정고시에 도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안돌아갔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한지 5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나의 머리는 굳을 때로 굳어 있었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열등감에 살았습

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는 중학교만이라도 나와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중학교 졸업 자격증을 못 따다면 “차라리 죽자”라는 다짐을 했고 죽을 각오로 하니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해냈습니다. 중,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일 년 만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년 졸업하면서 학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대학원 2년 반을 다니며 석사학위까지 받았으며 올해 9월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반에 입학하여 박사에게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올해 책을 써서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안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렸을 때, 처절하게 가난한 굶주림 속에서 배고픔의 고난과 멸시당하는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의 고난 속에서도 엄마는 늘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격려의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또한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항상 격려해 주며 함께 했기에 오늘의 우리 가정이 우뚝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듯이 저는 고생을 했기에 즐거운 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저의 목표는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었기에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격려해주며 이끌어 주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하며 좋은 일 많이 하며 살 것입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46회 어버이날 행사 개최

따뜻한 봄바람이 기분좋은 5월, 제 46회 어버이날 행사 사랑해孝, 감사해孝, 응원해孝에 예상보다 두 배는 많은 6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재가어르신들에게도 카네이션과 기념품을 전달하며 어버이 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다시쓰는 신혼일기 3기

지난 6월 5일, 복지관 회원 황혼 부부 4쌍이 국립 중앙박물관 거울못식당에서 리마인드 웨딩을 올렸다. 올해로 3기를 맞이한 '다시 쓰는 신혼일기'는 심리치료, 요가, 푸드테라피 등 3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문제 해결능력과 친밀도를 향상 시켜 증가하는 사회적 이슈인 황혼 이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웨딩관련 업체의 재능기부와 국립 중앙박물관, 강남구청이 후원하여 지역자원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제 4회 친친어울림 한마당

한가위맞이 지역축제에 500명의 복지관 이용자 복지관 이용자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이 모였다. 1부행사에는 떡메치기, 지게웃놀이 등 전통놀이 5종의 체험부스가 마련되었고 2부에서는 총 7팀의 복지관 이용자, 지역주민들의 장기자랑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또한 시니어들이 직접 제작한 엽서를 판매하는 등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모금행사가 진행되어 더욱 훈훈한 행사가 되었다.



KB 국민건강 총명학교

우리복지관은 강남구 최초로 KB국민건강 총명학교 실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7월부터 진행된 KB 국민건강 총명학교는 1회기 오리엔테이션부터 두근두근 사계절 화상, 리듬토크, 세대공감 퀴즈 등 4대 영역으로 구성된 8회기의 통합적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며 KB 금융그룹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지원한다.



가을나들이

지난 10월 17일, 130여명의 논현 회원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함께 원주 치악산 일대로 가을나들이를 다녀왔다. 아름다운 단풍 경치에 취하면서 함께 다같이 웃고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2018 논현 10대 뉴스



DoDo 아카데미

신규 사업인 DoDo 아카데미는 기수별 8회기로 운영되는 선배시민 프로젝트로 2018년 올해 총 4기에 걸쳐 50여명의 어르신들이 최종 수료하였다. 갈등조정과 인문학을 테마로 노년의 삶을 통찰하고 다양한 지식을 쌓으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며 한국피스메이커와 서초구립 중앙 노인종합복지관의 서초골든클럽 은퇴 시니어가 강사로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강남논현남성합창단 제 3회 정기연주회

강남구 유일의 남성합창단인 강남논현남성합창단의 제 3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7월 10일 화요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할 만큼 수준 높은 실력을 자랑하는 합창단은 한여름 밤 아름다운 음색으로 500여석을 꽂 채운 관객들을 귀를 사로잡았다. 또한 소프라노 이미경과 정신챔버콰이어가 특별출연하여 무대를 더욱 빛내주었다. 강남논현남성합창단의 계속되는 나눔공연과 제 4회 정기연주회가 더욱 기대된다.

사랑의 집고치기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치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강남구청 건축과, KTe state, 강남구 건축사 등 여러 협력단체가 참여하여 재가복지 대상자 2가구를 선정하여 낡은 장판을 교체하고 도배작업이 진행되어 어르신들이 더욱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IMM과 함께하는 김장나눔행사

11월의 마지막 날, IMM 기업과 함께하는 김장나눔행사_김치를 부탁해 "아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 약 90가구에 김장김치 15kg씩을 전달하여 어르신들의 겨울철 식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나눔愛 페스티벌

지난 12월 6일, 2018년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송년행사인 나눔愛 페스티벌이 진행되었다. 우수 후원단체 및 개인, 우수 봉사단체 및 개인 시상이 진행되었으며 외부특별공연과 직원공연으로 한 해 동안의 관심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KB국민건강 총명학교 황금브레인 아카데미

편집 정희선 복지과장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배기 공부가 무언지 알려준 학교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매주 20개의 계단을 올라와 들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올해 87세로 복지관 프로그램을 처음 이용해 보았습니다.
왜 진작 참여하지 않았나 지난 날이 후회가 됐어요”

“사회복지사의 진로를 결정하게 해준 햇빛 같은 프로그램이었어요”

“다른 복지관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봉사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정성들여 준비하는 봉사활동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KB국민건강 총명학교 ‘황금브레인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어르신들과 서포터즈의 짧은 참여소감을 잠시 바라만 봐도 이 학교가 지닌 값진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참여자와 서포터즈가 전하는 생생한 수기를 통해 총명의 감동실화를 더 깊이 느껴보세요.



나를 살리고 웃게 만든 사랑의 학교

글 참여자 현지원

나는 다리가 불편해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나이가 들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년 전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아 지팡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내 자신이 너무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매사 짜증나고 화가 나서 그 누구에게도 내 형편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월급 주며 당연하게 살아온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될 줄이야... 큰 절망감으로 6년 동안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숨어만 지내는 나를 살리겠다고 복지관에 나가 보길 권유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집에서만 있다 죽는 것보다 낫겠다 싶은 마음으로 복지관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고 오랫동안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은 터라 복지관에 잠깐 나가는 것 외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올해 총명학교를 만나게 됐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굳은 얼굴인 탓에 주위 사람들이 무서운 할머니라고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학교에 다닌 후로 내가 너무 잘 웃는 다며 주변에서 놀라워합니다. 가장 놀라는 건 우리 가족입니다. 함께 한 학생도 ‘어떻게 할머니는 그렇게 항상 웃고 계시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총명학교 덕에 나도 ‘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총명학교는 나를 살린, 나를 웃게 만든 학교입니다. 학교를 만들어준 관계자와 담당자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이 총명학교에 다니며 저처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총명학교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일곱색깔 무지개 총명학교

글 남서울대학교 서포터즈 유하은

총명학교를 무더운 여름에 만나 선선한 가을 두 계절 동안 서포터즈 봉사활동을 하면서 “재미와 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어요. 사실 총명은 봉사라기보다 ‘어르신들과 만나 얘기하고 재밌게 노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봉사를 어려워하는데 저는 총명학교에 오는 게 너무 행복했고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어르신들께서 항상 웃으면서 반겨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를 기억해주셔서 이 시간이 기다려진 것 같아요.

총명활동을 통해 배운 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아 감사함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일 감사한 건 제 진로를 확실히 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꿈이 사회복지사였지만 어떤 분야를 갈지 결정을 못했었는데 이번 총명학교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을 대하는 노인복지로 가야겠다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이 끝나갈 즈음 ‘나에게 총명학교는00다’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총명학교는 무지개”라고 발표했어요. 무지개는 7가지의 색들이 각자의 색을 띠며 하늘에 예쁘게 떠 있고 보고만 있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총명의 어르신들이 너무 매력적이었고 미소가 아름다워 계속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총명활동 수료식 때는 39명의 어르신들과 서포터즈 대학생들 모두의 수료 소감을 나눴잖아요. 그때 한 명도 빠짐없이 총명을 사랑했고, 귀하게 여겼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1학년 후배가 아쉬워서 눈물 범벅의 소감을 나눌 때 저희 모두 울컥했습니다.

짧지만 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총명학교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좋은 경험,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감사했습니다. 열정적인 현장의 사회복지사 선배님들, 좋은 언니, 오빠, 친구들,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방향하면 또 놀러갈게요^^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첫 인문학 프로그램 DoDo 아카데미

글 유현세 사회복지사

2018년 최대의 화두어는 바로 ‘인문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문학과 관련된 텔레비전 프로그램부터, 서적, 강의, 프로그램 등 이 시대의 다양한 인문학 강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바로 DoDo아카데미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이 ‘humus’ 즉, 인간적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만큼 인간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조망하는 눈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복지관에서도 나섰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 가보실까요?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의 첫 인문학 프로그램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1기수 8회기로 운영, 총 4기수로 진행되었으며 총 63명의 어르신이 수료하였습니다. 이번 인문학 프로그램은 총 2개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각 4회씩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한국피스메이커 여삼열 대표와 함께 갈등 조정과 관계증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늘 겪는 갈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갈등관리의 이해와 필요성,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법,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의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강사의 일방적인 소통방식이 아니라, 그룹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 어르신들이 갈등에 대한 상황을 놓고 사례를 공유하며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되어 보다 의미 있고 실용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Humanities



두 번째 주제는 서초중앙노인종합복지관 서초골든클럽과 연계하여 한국화, 스토리텔링 문화체험, 춘추전국시대 역사, 세계문화 역사의 4가지 주제와 4명의 강사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하나의 주제만 진행하지 않고, 여러 주제로 진행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을 다룸으로서 이용 어르신들의 교양문화 소양 향상과 소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8회기에는 각 기수별 수료식을 진행하였는데, 학사복과 학사모를 착용하고 짧게나마 참여했던 DoDo아카데미 참여 소감과 인문학 소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각 기수별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전 학교에서 예, 약,사,어,서,수라는 이름으로 6예를 가르쳤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마음을 닦고 정전하였던 것이 생각난다”며, “교양이라는 단어는 마치 굉장히 고상하고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지만, DoDo아카데미에 참여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쉽고 즐거운 것으로 느껴졌다”고 참여한 어르신이 소감을 전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처럼, 우리 인생에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목매지 않고, 내가 할 일을 차근차근 해 나가며 돌파구를 찾아 나가는 변화의 시작, 바로 DoDo 아카데미입니다.





개인봉사자

이미화 자원봉사자

인터뷰 강나린 사회복지사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라방에서 배식 및 환경미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 이미화라고 합니다.

Q. 봉사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아이들이 크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좀 더 뜻 있게 사용할 방법을 생각하다 복지관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Q.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처음에는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 어르신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서로 편안하게 한발짝 다가선 느낌입니다.

Q. 가장 보람이 되었던 적은 언제였나요?

배식 후 어르신들이 반찬, 밥, 국들이 말끔하게 비워진 식판을 보시며 웃으실 때, 비록 제가 음식을 만들질 않았지만 부듯하고 행복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봉사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나날수록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을 알기에 나누는데 인색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언제나 노력하는 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단체봉사자

제아치과

인터뷰 강나린 사회복지사

Q. 제아치과에 대한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아치과는 서울대학교 및 동대학원 출신의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치과 진료가 가능한 다양한 진료과목과 안전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입니다. 치아치료부터 안면윤곽수술, 양악수술 등 고난도 수술까지 풍부한 수술경험을 갖춘 의료진이 진심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메디컬 아시아-2018 제 11회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치과부문에서 제아치과의원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Q. 사회공헌활동(후원&봉사)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누구에게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지만 치아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제때 치료가 어려운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노인분들의 비율이 가장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집에서 치아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구강용품 배부와 동시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급식배식 등 정기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보탬의 손길을 더하는데 뜻을 나누고 싶습니다.

Q. 자원봉사&후원 활동을 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모든 봉사활동 후에는 가슴 뭉클한 감동이 남습니다. 얼마 전 복지관 봉사를 나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어르신 한 분이 힘들게 걸어 나오셔서 저희 손을 꼭 잡아주시고는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이지만 어르신의 이 따뜻한 한마디는 여운이 오래갈 것 같습니다. 봉사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진한 감동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활동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항상 안전한 진료와 높은 가치의 환경에서 환자에게 최대 만족을 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선도하는 국위선양의 롤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제아치과를 믿고 내원해주시는 환자분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진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시니어 후원자

장정자 어르신

“저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부족한 게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미 강남구 봉사왕으로 명성이 자자하지만 올해엔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 후원회에서 임원으로 활동까지 하고 있는 장정자 어르신은 이제는 후원왕까지 도전하며 실천하는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인터뷰 성정훈 사회복지사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후원회, 완소당 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자라고 합니다.

Q. 매주 봉사뿐만 아니라 후원도 꾸준히 해주고 계신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경로식당에서 봉사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후원했었어요. 예전에는 많이 열약했거든요. 식판, 수저, 물통같이 기본적인 물건도 부족해서 식당 로테이션도 느리고 그랬죠.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셔서 직접 물건을 사서 후원을 했었어요. 그렇게 경로식당에만 후원과 봉사를 하다가 올해 봉사단 나들이에서 우연히 후원회 회장님(김창옥)이 후원회 가입을 권유하셨어요. 오랫동안 복지관을 다녔지만 후원회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난 후원만 하고 활동 같은건 잘 못해요” 라고 했지만 어느새 저도 모르게 모금캠페인도 하고 아동센터가서 나눔활동도 하고 있더라고요.

Q. 나눔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실때는 언제인가요?

저는 무엇보다 좋은 일은 하니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서 좋았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소중한다고 생각하는 데 여기 와서 조리장(서정옥)님, 김창옥 회장님, 이미화 선생님 같이 좋으신 분들 만나게 제일 소독이예요. 또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몸이 아프면 병원비, 약값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후원도 힘들고 봉사는 더더욱 못해요. 몸이 건강해야 나눔활동도 무리없이 할 수 있어요. 또 복지관 나오면 식사를 제때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건강해 지는데 한 몫했죠.

Q. 복지관과 이용자 어르신, 지역사회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봉사자, 후원자가 지금보다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봉사, 후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계속해서 그런 나눔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해보신분들은 그게 얼마나 보람차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실거예요. 무궁무진한 사랑과 행복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혹시 망설이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말고 복지관에 찾아오시거나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Q. 마지막으로 장정자 어르신에게 나눔이란?

기쁨은 나누면 두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듯이 작은 도움이나마 여러사람이 즐겁고 기쁨이 있는 생활로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란 지점장

후원단체

KB 국민은행 학동역지점

“나눔에 미래가 있다”

KB 국민은행은 국내에서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어 있는 금융기업이다. 논현노인종합복지관도 2018년 KB국민은행 학동역지점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만남 스토리를 김애란 지점장님을 만나 직접 들어보았다.

인터뷰 성정훈 사회복지사

Q.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간단한 지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KB국민은행 학동역지점은 학동역 5번출구 앞 진우빌딩 1층 자동화코너, 2층 영업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업무, 대여금고, 외국환, 펀드 등 전반적인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저희 복지관과의 인연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아마 8월에서 9월 넘어갈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많이 더울 때였는데 논현노인종합복지관 박종원 관장님께서 직접 지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한가위 맞이 지역행사 후원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요. 그동안 저희도 사회공헌활동을 하고는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지역사회, 그리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은 부족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마침 관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기꺼이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Q. 후원뿐 아니라 봉사활동도 진행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참여해보니 어떠셨나요?

추운 겨울을 맞아 어르신들께 영양식품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저녁시간에 어르신들께 과일, 소고기, 떡국떡을 전달해 드리는 봉사활동도 최근에 했습니다. 논현동에 이렇게

어렵게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어르신들을 보고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앞으로 저희복지관과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눔이 곧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논현노인종합복지관에 유명한 남성 합창단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역사회에서 나눔공연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곳에서 뜻을 펼칠 수 있게 저희가 후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KB국민은행 학동역지점과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이 만들어갈 아름다운 행보를 지켜봐주세요!

2018년 노년노인종합복지관 후원현황 보고

2018년 후원금 수입·지출현황

구분	수입		지출			
	계	102,058,514원	계	102,058,514원		
지정 후원금	지정후원금 수입	40,223,300원	소계	40,597,570원		
			재가복지사업	23,924,180원	강남노년남성합창단	4,599,670원
			시니어후원단	1,503,720원	경로식당	600,000원
			지역복지사업(은누리상품권)	2,970,000원	직원지정후원(법인상품권)	2,000,000원
	지정후원금 이월금	8,875,170원	KB총명학교	5,000,000원	-	
비지정 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수입	31,958,601원	소계	55,060,126원		
			일용잡금	9,629,620원	정서지원사업	1,600,000원
			자산취득비	2,444,000원	기관조직사업	8,499,840원
비지정 후원금 이월금	비지정후원금 이월금	14,600,625원	시설장비유지비	2,377,500원	지역사회조직사업	7,405,880원
			학습활동지원사업	2,187,500원	지역복지사업	2,108,720원
			건강관리사업	328,860원	사회참여지원사업	3,735,980원
			사례관리사업	1,829,100원	이월금	12,913,126원
			공모사업 수입	6,400,818원	소계	6,400,818원
공모사업 이월금	-	문화예술지원사업(미술반)	3,400,366원	문화예술지원사업(사진반)	3,000,452원	

2018년 후원품 수입·지출현황

(*후원물품 환산가액 / 전년도 이월품 사용내역 포함)

총금액	수입		지출				
	57,963,408원	9,248개	총금액	58,072,058원 9,286개			
후원품 내역	가전제품, 간식류, 건강보조식품, 과일, 김치, 떡, 생필품, 생활용품, 쌀, 음료, 음식, 의류, 제과, 기타(영화티켓, 마스크팩, 블루투스 이어폰, 수제순수건 등)	건강생활증진사업	395,980원	20개	경로식당사업	9,490,300원	3,545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5,522,380원	585개	자원봉사육성사업	3,308,029원	1,609개
		재가사례관리사업	32,067,659원	1,515개	정서지원사업	2,399,860원	598개
		평생교육사업	2,056,560원	771개	행사지원	4,184,680원	822개
		요양센터사업	1,428,600원	91개	기타	188,010원	27개

노년노인종합복지관의 행복파트너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삶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이 됩니다.

후원안내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6-227483
(예금주: 강남구립노년노인종합복지관)

후원방법 직접납부 | 계좌이체 | CMS후원 | 해피빈
기부 노년배리 후원저금통 분양

자원봉사안내

자원봉사분야
원더풀봉사단(노인전문자원봉사단) | 개인봉사 | 기업 및 단체봉사

자원봉사문의 및 신청
· 전화 02-541-0226 · 홈페이지 www.nonhyunsenior.org

2018 노년의 아름다운 나눔, 아름다운 손길의 주인공

노인전문 자원봉사단

강옥자, 곽태균, 권은옥, 권태길, 김광말, 김명자, 김영자, 김옥분, 김옥희, 김정순, 나정순, 류태선, 박영자, 박현수, 박홍규, 성낙원, 손영권, 송계정, 송계화, 신덕자, 신정자, 신현순, 오성환, 유영목, 이다녕, 이덕만, 이순자, 이영숙, 이원경, 이은희, 이종남, 이종은, 임춘봉, 임형순, 장정자, 정덕시, 정채인, 조성임, 조수자, 주경희, 차동명, 채희수, 최귀숙, 최정숙, 한영도, 한태부, 현지원, 황성자, 황태영

개인 봉사자

강연우, 강지원, 강현희, 고은희, 김명숙, 김명희, 김보미, 김서정, 김선남, 김세정, 김수빈, 김영은, 김원빈, 김정임, 김지수, 김태욱, 김현연, 김현우, 김형일, 김혜영, 김혜원, 노완석, 류임정, 문재윤, 문정현, 문해선, 민경찬, 박수진, 박창진, 박채연, 박혜린, 서예림, 송서연, 송유진, 송준형, 신동현, 신승아, 신승찬, 신승현, 신은영, 양소희, 양유진, 염승욱, 오근택, 오보라, 왕동한, 유지예, 유하은, 윤변우, 이가은, 이기섭, 이다겸, 이대희, 이미화, 이민정, 이상균, 이상우, 이상희, 이아라, 이은혜, 이정민, 이종순, 이채민, 임수지, 장영설, 전예지, 전중훈, 전해주, 정금아, 정은지, 정정택, 정찬우, 조성현, 주정훈, 지 용, 진성준, 진영선, 최민석, 최성민, 최성우, 최수현, 최해민, 하예린, 하태용, 하태지, 한영숙, 한희중, 허미영, 허지연

단체 봉사자

강남구청 건축과, 강남의용소방대, 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 경륜경정사업본부 강남지점, 남서울대학교, 노년라이온스클럽, 리봉한의원, 미래에셋생명, 빛나는MC, 삼성생명 부동산금융부, 삼성생명 OS운영부, 삼성생명 자산운영본부, 삼성전자 대학생봉사단, 새마을부녀회, 신한은행 군인공제회관점, 우리은행 강남구청지점, 우리은행 노년동지점, 우리은행 도산대로금융센터, 우리은행 신사동금융센터, 우리은행 연주로지점, 우리은행 학동역지점, 자생한방병원 강남점, 제아치과, 좋은이웃봉사단, 청담고등학교, 포스코강판

개인 후원자

김갑균, 김갑순, 김경식, 김경자, 김광순, 김마래, 김명숙A, 김명숙B, 김문식, 김송연, 김신자, 김영자, 김영자B, 김옥수, 김옥순, 김정순, 김중수, 김지수, 김지운, 김진희, 김차숙, 김창욱, 김청일, 김한례, 김화자, 김희숙, 나정순, 라명희, 류태선, 마덕일, 민민자, 박영자, 박숙자, 박윤규, 박유희, 박주윤, 박한별, 박홍규, 변정수, 서순복, 성낙원, 손옥자, 송계정, 송계화, 송명숙, 송영실, 신갑순, 신수자, 신현순, 양소희, 유영희, 이경옥, 이다녕, 이선순, 이영숙, 이영자, 이윤길, 이옥재, 이정숙, 이종희, 이춘자, 이현철, 임춘봉, 임형순, 임희자, 장서영, 장정자, 정무호, 조병태, 조영자, 조영희, 조준영, 최귀숙, 최준순, 한상숙, 한정순, 황태영

단체 후원자

강남구노인복지기관협의회,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강남구자원봉사센터, 강남구직업재활센터, 강남노년남성합창단, 강남복지재단, 경륜경정사업본부 강남지점, 김가네 노년점, 남서울교회, 남서울복지재단, 노년라이온스클럽, 노년시니어후원회, 메드렉스병원, 미래에셋생명, 밀알복지재단, 삼성생명 부동산금융부, 삼성생명 OS부,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새영동기물 신세계푸드, 신한은행 영동금융센터, 아름다운가게, 아리스타, 알파문구 노년역점, 에스 트릭 예잇, 영동전통시장 상인회, 오피스타운, 왕성약국, 우리은행 강남구청지점, 우리은행 노년동지점, 우리은행 도산대로금융센터, 우리은행 신사동금융센터, 우리은행 연주로지점, 우리은행 학동역지점, 이조명과, 자생한방병원 강남점, 제아치과, 쭉꾸미한상, 카페노니도 노년1호점, 탕당집,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황다방 CJ 프레시웨이, IMM Investment, Imm Private Equity, KB국민은행 학동역지점, VJJB 코리아